

潘 대권 시사…제3지대 형성 본격화 되나

측근 “특정 정당 안간다…많은 분 만나볼 것”
손학규·김종인·국민의당·바른정당 연대 관심

유력 대선 주자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2일 귀국하면서 정치권에 제3지대 형성이 본격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.

일단 반 전 총장이 가까운 시일 내 특정 정당과 손을 잡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독자세력화 후에 생각을 공유하는 세력과 자연스런 연대, 즉 제 3지대를 구체화할 가능성이 크다.

반 전 총장의 ‘실무 준비팀’에 소속된 이상일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“반 전 총장이 특정 정당을 지금 선택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”며 “주요 정치 지도자들이 계시는데, 당분간 그분들과 만나서 어떤 연대를 도모하는 것 같지도 않다”고 전망했다.

또 “새누리당의 많은 분들이 이탈한 상황이기에 때문에 새누리당 안에 들어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”며 “(반 전 총장) 맹비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 들어가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”이라고 말했다.

이 전 의원은 나아가 “서로 생각을 공유하는 분들과 정치적 연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”이라고 예상했다. 아울러 “국민의당도 반 전 총장과 충분히 연대할 수 있다는 말씀도 하고 계시고, 바른정당 역시 마찬가지로 아니냐”고 덧붙였다.

정치권에서는 반 전 총장과 정치적 연대가 가능한 인사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, 정당으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을 꼽고

있다. 이 세력이 연대할 경우 대선판을 흔들 수 있는 이른바 ‘제 3지대’ ‘빅텐트’가 형성된다.

이 같은 배경에서 손 전 대표와 김 전 대표가 반 전 총장 귀국 직전 나란히 개헌론을 설파하며 ‘제3지대’ 띄우기에 나선 것도 주목된다.

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주최한 ‘대학생 리더십 아카데미’에 참석한 두 사람은 모두 반 전 총장과 만날 수 있다는 의사를 내